



봄 무 파종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은 18일 오전, 나주시 봉황면 무밭에 수십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씨를 뿌리고 있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 영향으로 농업 현장에서는 일손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려워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나주=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현대차·기아 생산 전기차 미국 전기차 보조금 제외

현대차와 기아가 생산하는 전기차가 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전부 제외됐다. 미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하위 모델 포함 22개) 대상 차종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북미산 조립 요건만 갖추면 보조금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엄격해진 배터리 요건을 맞춰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상 차종이 크게 줄어들었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엘라바마 공장에서 조립되는 현대차 GV70의 경우 세부 요건 발표 이전에는 보조금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제외됐다. IRA는 범조항에서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형태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3와 모델Y를 비롯해 쉐보레 볼트, 이퀴녹스, 포드 E-트랜짓, 머스탱 등 미국 제조사 차량만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 관계자는 "현대차 GV70은 배터리 요건을 맞추지 못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다만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전반적으로 혜택을 받는 차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광주시, 발전 가로막은 '5+1 사업' 조기 해결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구체화·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속도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탄력...지산IC 진출로 해법 제시

민선 8기 강기정호가 출범 10개월 만에 그동안 지역발전을 가로막아온 해묵은 현안인 이른바 '5+1 사업'을 조기에 해결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출범 초기 일각에서 제기됐던 행정경험 부재 등의 우려를 딛고 17년간 장기표류했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재추진과 지역 최대 난제였던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국회 특별법 통과 등을 이끌어 낸 점은 백미로 꼽힌다.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19일 오후 지산IC 진출로 활용 해법을 발표한다. 강 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과 함께 자신의 임기 내 해법 제시를 약속했던 이른바 '5+1사업' 중 마지막으로 남은 현안 사업이다. 광주시는 완공 이후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지산 IC 진출로에 대한 위험도 평가 용역과 현장 방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안전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주력해 왔다. 특히 지산IC 진출입로 교통사고 예측 및 위험도

평가 용역을 통해 일반 도로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도가 최대 14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강 시장은 이날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왼쪽 진출로 활용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 시장이 임기 내 해법 제시를 약속한 '5+1 사업'은 ▲복합쇼핑몰 유치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 ▲지산 나들목(IC) 진출로 개통 여부 결정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군 공항 이전 사업이다. 강 시장은 당시 단기 해결이 어려운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선 '+1'로 분류하고, 임기 내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행히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달빛 동맹' 도시인 대구시와의 공동 노력 등을 통해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로 해법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지난 17년간 꼬일 대로 꼬였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해법을 마련한 것도 민선 8기 1년 최대 성과 중 하나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두고 민선 7기 때부터 소송전을 이어왔던 서진건설그룹과 소송을 마무리했으며, 이후 신세계프라퍼티 측에서 어등산 내에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건립을 제안한 상태다. 광주시는 사업제안서 검토 및 평가, 지점 마련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경 관광진흥법에 따른 제3차 공모를 공고할 예정이다. 제3차 공모는 투자 의향 기업(신세계프라퍼티)과 검토, 협의한 뒤 다른 사업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빠르게 올해 연말 이전에 사업자 선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복구 임동 소재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덴마크 건축설계회사인 어반 에이전시의 '모두를 위한 도시(City For All)'를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했으며, 오는 7월까지 부지개발 사업자인 (주)휴먼스튜디오에프비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내에는 전국 최대 규모인 가정 '더현대 광주'도 들어선다. 더현대 광주는 연면적만 더현대 서울(연면적

19만 5000㎡)의 1.5배에 이르고 친환경, 최첨단 기술, 예술, 엔터테인먼트, 로컬 등 5가지 문화 테마가 융합된 국내 첫 문화 복합몰로 지어질 예정이다. 상습정체 구간 해결을 위한 백운광장 지하차도 건설 사업도 588억원을 들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됐던 지하차도 침수 등 안전성 문제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 해결했으며, 도시설도 2호선 공사와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로써 그동안 광주 발전을 가로막아왔던 악성 주요 현안들이 민선 8기 출범 1년도 채 안 돼 모두 해결법을 찾게 된 셈이다. 시청 안팎에선 민선 8기 출범 초기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조기 성과 배경을 놓고 심사숙고 끝에 한번 결정하면 소신껏 밀어붙이는 강기정 광주시장 특유의 '독심의 리더십'이 주효했다는 평가 등이 나오고 있다. 김준영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민선 8기 들어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방향성을 정확히 설정하고, 내외부 여러 변화 등에도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현대차와 기아는 조지아주 서태너 인근에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인 전기차 및 배터리 합작 공장 건립에 속도를 내는 한편 엘라바마 공장에서 조립 중인 GV70 배터리를 북미산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GV70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중국산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 이 같은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리스 시장에 집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초반 흥행 부진 ▶2면
- 광주 동명동 가로주택복지사업 찬반 논란 ▶6면
- "최고 드리블러"...이강인에 쏟아지는 찬사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크림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를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NEW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REME REGENERANTE

*인삼 인삼 사포닌 CA 함량 비교 **피부탄도도 ±12.3%, 탄력 +10.2%, 주름 -25.9% 인체시험 실험 결과(4주 후 사용 결과)(대상: 30~60세 31명) 시험기관: 라면제이피(광주광역시) 시험기간: 2021.03.08(월)~2021.05.01(일)